

기승 부리는 대출사기 주의하세요

최근 전북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따른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7일 조직적으로 육류담보 대출을 이용해 육류의 가격을 부풀리거나 담보를 중복 설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동양생명 등 제2금융업 업체 14곳에서 대출을 받아 5,770억원을 갚지 않은 일당 41명을 검찰로 이 기소했다. 흔히 말하는 '작업대출'이라는 수법을 이용한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전주에서도 지난달 28일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전환사기대출을 범행한 일당 13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을 이용하면 상환할 필요가 없다며 접근해 각종 은행과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게 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대출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사기는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에게 현금을 요구하는 사기다. 주

작업대출사기·전환사기대출 등 유형 다양 '대출 빙자해 현금 요구하는 사기' 가장 많아 개인정보 알려준 경우 휴대전화 주지 않아야

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접근해 신용등급이 낮아 담보나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대출금에 따른 이자 선납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다. 정상적인 은행이나 대부업체는 대출을 받기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고 의심스러운 채고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출금을 가로 채고 경우에 따라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전환사기대출의 경우 사문서 혹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출브로커 뿐만 아

니라 대출한 본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례로 지난달 24일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피해자 15명을 상대로 5억원을 가로챈 일당 1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작업대출사기'는 주로 정상적인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류를 위·변조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는 것이다. 특히 작업대출은 한도가 낮은 사람들이 큰돈을 빌리기 위해 필요에 의해 찾는 사람들 대상이다. 그러나 이 수법도 전환사기대출처럼 서류를 위·변조하는 방법을 사용해 대출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대출사기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대출모집인을 사칭해 대출서류를 수집하거나 취업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이런 식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악용돼 피해자 명의로 대출하는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특히 이미 공인인증서나 통장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 휴대전화를 요구할 시에 이에 거절해야 한다. 휴대전화는 대출심사에서 최종적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필요한 경우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koanconsultant.or.kr)을 통해 적법한 대출모집인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수수료로 요구하는 등 각종 수법을 융합한 복합적인 대출사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대출업체에 직접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대출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바로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된다. /이상민 기자

'전주종합경기장 기록물 수집 공모전'

전주시,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진·문서·박물류 등 대상

전주시가 전주의 배꼽인 전주종합경기장에 담긴 시민들의 소중한 기억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시민들이 기억하는 전주종합경기장 관련 사진과 문서, 박물류 등 다양한 기록물을 모으는 '제3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주종합경기장은 설립 당시 시민들의 성금으로 건설비가 충당되고 지난 1963년 제44회 전국체전에는 임원회 선수들을 수용할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턱없이 부족하자 시민들이 나서서 민박으로 해결해 '인정 체전'으로 불린 시민의식 발현지로, 전주 정신을 이어갈 인문학적 자산으로 의미가 커 이번 수집 공모전 주제로 선정됐다.

기록물 수집대상은 △사진 도면 등 1960년대 이전 종합경기장 부지 관련 자료 △1963년 종합경기장 신축을 위한 도면 성금 관련 자료 △1963년 제44회 전국체육대회 당시 대규모 시민 민박 입증 자료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소년체전, 어머니체육대회, 여대생체육대회 등 행사 기록물

△덕진운동장(일제강점기), 인봉리운동장(문화촌) 등 전주의 경기장 관련 기록 △기타 전주 역사와 관련해 증거적 가치가 뛰어난 근현대 기록물 등이다.

또한, 시는 기록물 공모에만 그치지 않고 종합경기장에 관한 유의미한 기억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구술을 채록해 보존하고, 다른 지역과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찾아 수집하는 등 다각적 방법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공모전에 응모된 기록물 중 감정평가단 심사를 통해 종합경기장 부분 대상(꽃신상) 입상자와 기타 부분 특별상 입상자에게 각각 5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최우수(대동상), 종류상(우수), 율곡을상(장려), 향신상(입선) 등 총 53명 입상자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접수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kisgam74@korea.kr)로 접수하거나, 전주시 총무과(063-281-2551, 5087)로 해당 기록물과 함께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33동 비빔밥 퍼포먼스' 푸짐해진다

(전주비빔밥축제 대표 프로그램)

10월 28일 객사 앞 충경로에서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행사 연계 전통문화전당에서 행사장까지 '팔달로 비빔밥 퍼레이드' 신설

전주비빔밥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33동 비빔밥 퍼포먼스'가 올해는 객사 앞 충경로 '차 없는 사람의 거리'에서 푸짐하게 펼쳐진다. 전주시와 전주비빔밥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선거현)는 오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2017 전주 비빔밥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33동 비빔밥 퍼포먼스'를 보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할 수 있도록 '차 없는 사람의 거리'가 운영되는 10월 28일 객사 앞 충경로에서 열기로 했다

33동 비빔밥 퍼포먼스는 33개동 주민들이 마련한 다양한 비빔밥을 관람객들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축제 기간 최대 관람객들을 끌어 모았던 인기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객사 앞 행사장까지 이어지는 신명나고 흥겨운 팔달로 비빔밥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행사의 일환인 다양한 체험·공연들도 함께 선보여 행사의 완성도를 높여가 된다.



전주비빔밥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33동 비빔밥 퍼포먼스'가 올해는 객사 앞 충경로 '차 없는 사람의 거리'에서 푸짐하게 펼쳐진다.

시는 또 비빔밥 퍼레이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관람객들이 편하게 비빔밥을 시식하며 행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행사장 주변에 파라솔과 의자 등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와 조직위는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지난 21

일 33동 주민센터 탐방들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그램 진행방법과 세부 추진 일정, 동별 협조사항, 안전한 식재료 사용방안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한편, 전주비빔밥축제는 오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펼쳐질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누락세원 발굴 세무조사

전주시는 6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주민세·재산세 등의 누락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법인 및 취약분야 중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법인 장부기약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취득당시 장부에 포기되어 있지 않으나 추후에 추가되는 비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또, 주민세 재산분과 중점원분, 재산세 등은 소액으로 집중관리가 되지 않아 탈루·누락이 종종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6억 이상 취득세 신고법인 100여곳과 주민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전 분야에 걸쳐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발굴된 탈루·은닉 세원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전주시 세원발굴 세무조사단은 지난 8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약 6억의 세원을 발굴했으며, 지난 상반기에는 목적의 사용신고 및 과소신고 납세자 등 150건을 적발해 20여억원을 추징했다. 또, 지방세 감면 받은 후 납세자가 지켜야 할 감면요건을 정리해 매월 안내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민 자전거 행진 펼쳐 전주천 자전거길서

전주시는 6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주민세·재산세 등의 누락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법인 및 취약분야 중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법인 장부기약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취득당시 장부에 포기되어 있지 않으나 추후에 추가되는 비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또, 주민세 재산분과 중점원분, 재산세 등은 소액으로 집중관리가 되지 않아 탈루·누락이 종종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6억 이상 취득세 신고법인 100여곳과 주민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전 분야에 걸쳐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발굴된 탈루·은닉 세원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전주시 세원발굴 세무조사단은 지난 8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약 6억의 세원을 발굴했으며, 지난 상반기에는 목적의 사용신고 및 과소신고 납세자 등 150건을 적발해 20여억원을 추징했다. 또, 지방세 감면 받은 후 납세자가 지켜야 할 감면요건을 정리해 매월 안내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자전거 라이딩을 즐겼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시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퀴즈를 풀며 안전한 자전거 라이딩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시간도 마련했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전주천 등 도시 곳곳에서 라이딩을 즐기고 있다"라며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은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오는 10월 21일에는 전주 시청에서 기린대로를 따라 전주월드컵경기장까지 시민 자전거 대행진을 펼칠 예정이다. 10월 자전거 대행진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덕진경찰, 범죄 피해자 지원 '희망나눔바자회' 열어

덕진경찰서는 22일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농협하나로 클럽 전주지사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희망나눔바자회'를 열었다.

이 날 덕진경찰서 주차장에서 과일과 농수산물, 추석선물세트 등을 판매해 비차회 판매 수익금 중 일부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덕진서 '온(溫) 더하기'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함께해 덕진서장은 "누구나 범죄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며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www.j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장미, 호박, 배, 미나리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오태식, 상임이사 (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성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윤,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농민과 도시의 상생협력을 지향하는 전주농협 Good 농산물